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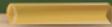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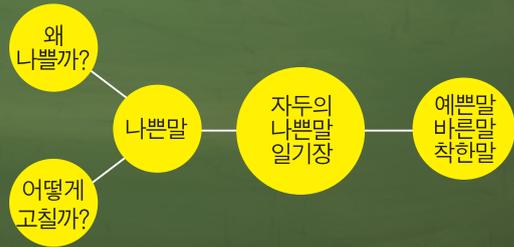
자두의 나쁜말 일기장

글:서지원 | 그림:김정진
캐릭터 원작:이빈
출판사:채우리 | 정가 9,000원 | 104쪽
초등 저학년

책 소개

이 책은 자두의 재미있는 일상과 자두의 일기, 선생님의 조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욕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자두의 일기를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게 보여 줍니다. 또 스스로 사용하는 말에 대한 생각을 담은 자두의 일기를 통해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후활동 주제망



독후활동 시작하기

1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곧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지요. 내가 하는 말은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 준다는 뜻이에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다음 빈칸을 채워 봅시다.

내가 자주 쓰는 말들	내가 듣고 싶은 말들	내가 듣기 싫은 말들

2 위에 적은 말들 중 내가 자주 쓰는 말과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얼마나 일치하나요?



또 내가 자주 쓰는 말과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얼마나 일치하나요?



3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의 거울에 비친 내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1 다음은 이야기 속에서 자두 또는 다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어땠나요? 또 이 말을 내가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1)

자두가 친구들에게
“××, 지금 눈 똑바로 뜨고 나 쳐다본 거냐? ××야!”
“애들아, 학교 가는 길이니? ××, 같이 가자!”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의 반응



이 말을 내가 듣는다면



(2)

자두가 민지에게
“야, 똥민지!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찻찻한 줄 알아? 밥도 못 먹고! 집까지 어떻게 가란 거야?”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다냐고!”



이 말을 들은 민지의 반응



이 말을 내가 듣는다면



(3)

자두가 단체 채팅방에서
“돌돌이는 딱 봐도 많이 먹게 생겼잖아. 배에 삼겹살도 갖고 다니고.”



이 말을 들은 돌돌이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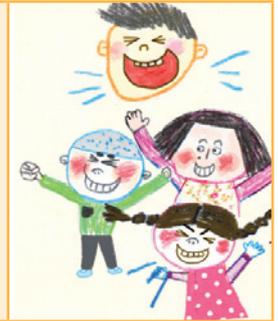


이 말을 내가 듣는다면



(4)

윤지와 민석이가
“한글도 제대로 모르다니, 유치원에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요즘 애들은 받아쓰기는 거의 다 백 점인데.”



이 말을 들은 자두의 반응



이 말을 내가 듣는다면



2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야기에서 딸기가 넘어져 다쳤는데도 돌돌이가 유행어를 쓰며 장난을 치자 자두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돌돌이와 자두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 친구가 다쳤는데 장난스러운 춤을 추고 키득거리며 유행어로 말을 한 돌돌이의 행동은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2) 돌돌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돌이를 노려보고 씩씩거리며 버럭 화를 낸 자두의 행동은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독후활동 주제2

나쁜 말, 어떻게 고칠까?

다음은 나쁜 말에 대한 고민을 담은 쪽지들입니다. 내가 이런 고민 상담 쪽지를 받는다면 뭐라고 조언해 줄까요? 각 쪽지에 대한 답장을 적어 보세요.

(1)

현수의 고민

저는 말을 할 때마다 ‘아씨’를 붙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도 ‘아씨’, 나빠도 ‘아씨’,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도 ‘아씨’ 하고 말을 시작해요. 남에게 시비 걸려는 게 아닌데도 욕을 버릇처럼 하기 때문에 항상 못된 아이라는 오해를 받아요. 이 버릇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답변



(2)

자두의 고민

우리 엄마는 요즘 살이 많이 쪼어요. 뺏살이 세 겹이나 늘어서 고무 튜브를 두른 것 같아졌지요. 그런 엄마에게 아빠는 “저팔계가 친구하자고 하겠어.”라고 하고, 우리도 “요즘 똥똥한 엄마는 인기 없어.”, “똥이 똥똥해 보여.” 하고 말했더니 엄마가 단단히 빠치신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을 어떻게 풀어 드려야 하죠?

답변



(3)

자두의 고민

내 친구 은희가 인터넷 기사에 나왔는데 그게 부럽고 질투 나서 댓글에다 일부러 못된 말을 썼어요. 그런데 내가 댓글을 달고 나니 그 아래에 은희에 대해 근거 없이 욕하는 댓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어요. 은희가 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 미안하고 마음도 아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답변



(4)

자두의 고민

저는 말은 잘하지만 받아쓰기를 하면 자꾸 틀립니다. 발음이 나는 대로 쓰면 되지 무엇 때문에 복잡한 맞춤법을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독후활동 주제3

예쁜 말, 바른 말, 사랑스러운 말

1 인터넷에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거친 말, 나쁜 말, 이상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안 보이잖아!> 이야기에서 자두와 윤석이도 ‘어차피 게임이라서 내가 누군지 모를 테니까…….’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험하고 거친 욕을 했지요.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할 때도 지켜야 할 언어 예절이 있어요. 인터넷을 이용할 때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하는 다짐을 적어 봅시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 이것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 _____
- _____
- _____

2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쁜 말, 바른 말, 기분 좋은 말을 건네 봅시다. 이럴 땐 이런 말로 예쁘게! 빈칸을 채워 보세요.

이럴 땐 이런 말로 예쁘게!!

1. 길을 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는 ➡

2. 친구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는 ➡

3. 친구가 잘못을 사과할 때는 ➡

4. 동생과 싸웠을 때는 ➡

5. 아침에 집을 나갈 때 부모님께는 ➡

6. 길을 가다 웃어른을 만났을 때는 ➡

7.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께는 ➡

※ 예시답안은 허니에듀 또는 어린이책사랑모임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허니에듀밴드 : band.us/@honeyedu • 허니에듀카페 : http://cafe.naver.com/honeyedu • 어린이책사랑모임카페 : http://cafe.naver.com/cheknoa